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 교수·학습자료집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CONTENTS



I

몸짓상징의 이해

- | | |
|-----------------|----|
| 1. 몸짓상징의 개발 배경 | 07 |
| 2. 몸짓상징의 개요 | 09 |
| 3. 몸짓상징의 속성 | 10 |
| 4. 몸짓상징의 기능 | 11 |
| 5. 몸짓상징의 강점 | 11 |
| 6. 몸짓상징의 다양한 사례 | 12 |



II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

- | | |
|---------------------|----|
| 1.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 원리 | 17 |
| 2. 몸짓상징「손담」어휘 목록 | 20 |



III

몸짓상징「손담」사용 및 지도 방법

- | | |
|-------------------------------|----|
| 1. 몸짓상징「손담」의사소통 방법 및 공통 유의 사항 | 37 |
| 2. 몸짓상징 표현과 관련된 장애영역별 특성 | 42 |
| 3. 몸짓상징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방법 | 50 |



IV

몸짓상징「손담」어휘별 적용의 실제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손담」



I



몸짓상징의 이해

1. 몸짓상징의 개발 배경
2. 몸짓상징의 개요
3. 몸짓상징의 속성
4. 몸짓상징의 기능
5. 몸짓상징의 강점
6. 몸짓상징의 다양한 사례



1 몸짓상징의 개발 배경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중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학습 및 생활지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간단한 그림 의사소통판이나 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PECS)와 같은 로우테크 방법을 사용하거나 음성이나오는 다양한 의사소통용 앱(예: 나의 AAC, 스마트 AAC, 마이토키 스마트 등)을 사용한다.

추상적이고 청각에만 의존하는 구어보다 위와 같은 그림상징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시각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을 보다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도 있다(예: 시각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어 또는 단순화시킨 수어 단어 표현을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해 왔지만(예: 독일의 GuK 시스템, 영국의 마카톤 등) 국내에는 아직 단편적인 연구 사례(예: 김정연 박은혜, 2006) 외에는 이러한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어나 그림상징의 사용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아동들의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자료집은 이와 같이 의사소통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쉬운 몸짓상징「손담」 표현들을 수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몸짓상징「손담」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학생의 측면:

구어 발달이 어렵거나 매우 지체되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로서 그림상징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시각중복장애학생과 같이 그림상징을 인식하거나 도구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며, 의사소통 도구를 던지는 도전 행동이 심한 학생, 또는 의사소통 도구를 찾고 작동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전 행동이 시작되는 학생 등도 포함된다. 몸짓상징「손담」 표현은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빨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 중에서도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어 표현의 추상성이나 복잡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 개발된 단순화되고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배우기가 더 용이하다. 청각중복장애아동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도·중복장애학생들 역시 인지적, 신체적 문제로 인해 복잡한 수어 표현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렵다. 즉 본 몸짓상징「손담」 표현 자료는 이와 같이 기존의 다양한 의사소통 지도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장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 표현은 중도 지적/자폐성장애 및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접촉을 통한 소통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각중복장애학생과 신체 움직임의 제한이 많은 지체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표현의 수정 방법을 함께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교사 및 부모의 측면: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교사와 부모는 의사소통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도 방법에서의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박은혜 외, 2017). 몸짓상징「손담」 표현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법이며 그림상징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교사가 구어를 사용하여 교수하거나 지시하면서 동시에 몸짓상징「손담」을 사용하여 아동의 이해를 돕는 수용언어적인 접근도 의사소통 도구를 별도로 사용할 때보다 더 용이하다. 즉 의사소통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사나 부모가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사소통 지도 방법으로 본 몸짓상징「손담」 표현이 개발된 것이다.



장애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 중 무엇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몸짓상징「손담」으로 가르쳐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본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표현들을 반드시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처음 지도하는 어휘도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각 학생별로 필요한 표현부터 가르치면서 개별 학생의 진전 상태에 따라 구어와 같은 보다 발전된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사소통 발달 및 확장의 측면:

어린이들의 의사소통 발달을 보면 구어보다 먼저 자연스러운 몸짓을 사용한다. 그만큼 배우고 사용하기가 쉽다는 뜻이지만 관습적인 몸짓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본 자료집에서는 기초연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필요성이 높다고 도출된 약 200개 정도의 몸짓 표현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단순한 감정이나 지적하는 표현 이상으로 보다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개발함으로써 서로 다른 즉흥적이거나 개인적인 몸짓 표현이 아니라 통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화 상대가 바뀌더라도 통용될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통된 표현이 개발 및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집의 내용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몸짓상징「손담」을 지도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수 자료로, 1) 몸짓상징「손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 몸짓상징「손담」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지도를 할 때의 유의 사항을 일반적인 부분과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3) 몸짓상징「손담」표현의 개발 과정과 개발 원리를 설명하고, 4) 각 어휘별 표현 방법 설명과 지도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 의사소통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몸짓상징「손담」표현은 204개이며 한 가지 표현으로 여러 유사한 단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어휘의 수는 272개이다.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몸짓상징「손담」개발 및 활용의 기본 가치관이다. 하지만 몸짓상징「손담」으로만 모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몸짓상징「손담」, 그림상징, 구어나 문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의사소통 발달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상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손담」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상징「손담」교수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 것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몸짓상징의 개요

1) 몸짓상징의 정의

몸짓상징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몸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징체계이다. 몸짓상징은 주로 손이나 몸동작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신체의 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으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동작으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몸짓상징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표현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와 행동을 의사소통의 시도로 받아들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사소통 체계 중 하나이다.

이 자료집에서 설명하는 몸짓상징 「손담」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일련의 몸짓으로 개발하여 구현된 상징 체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제스처나) 몸동작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관습적인 제스처와 한국 수어의 간단한 표현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와는 달리 중도·중복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현 방식을 찾아 개발하였다. 둘째,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상징체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하거나 관련한 어휘들의 표현 방식과 표현 형태의 일관성을 강조하여 개발하였다. 넷째, 관습적인 몸짓과는 달리 하나의 표현으로 다른 표현까지 확장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몸짓상징 「손담」은 한국수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의사소통 체계이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손 표현”을 기본으로 하되, “몸동작”을 이용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하였다. 여기서 “손 표현”은 한국수어의 표현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수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쉽게 사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의미 표현의 명확함과 간결한 표현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수어 중 매우 간단하여 따라 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과 복잡성을 제한하여 직관적이고 문화적으로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경우 손 표현만으로는 움직임의 범위와 표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몸동작”을 이용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하였다. 몸동작을 이용한 표현에는 얼굴 표정, 눈짓의 방향, 고개 및 손이나 팔 등의 움직임이나 형태, 자세, 신체의 터치 등을 포함한다.

2) 몸짓상징 「손담」의 표현 형태

몸짓상징 「손담」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표현 형태를 사용한다. 각각의 표현은 한 가지 표현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중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고개, 손이나 팔의 움직임, 몸 움직임, 자세 등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대상의 성질이나 행동을 표현한다.
- 손이나 몸 움직임의 속도, 범위, 방향, 정도 등의 방법으로 특정 대상의 성질이나 행동을 표현한다.
- 손을 이용하여 빨리, 당기기, 밀기, 가리키기 등으로 특정 대상, 생각, 의도, 감정 등을 표현한다.
- 얼굴 표정, 눈짓이나 눈 응시, 눈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거나 특정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 시각장애로 인한 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터치 단서 등으로 표현한다.



3 몸짓상징의 속성

몸짓상징「손담」은 주로 손 표현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전달되는 모든 표현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몸짓상징「손담」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몸짓상징의 다의성

몸짓상징은 한 가지 표현 방식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동일한 표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고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몸짓상징의 다의성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몸짓상징의 다의성은 한 가지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사한 의미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손을 흔드는 행동’은 아침, 점심, 저녁에 ‘만났을 때’, ‘헤어질 때’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안녕’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2) 몸짓상징의 즉각성

몸짓상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의사소통 대화 상대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몸짓상징은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용이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지능력의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표현과 수용의 어려움이 몸짓상징의 이러한 속성으로 많은 부분 상쇄된다.

3) 몸짓상징의 보완성

몸짓상징은 구어 의사소통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나, 화가 났을 때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커지는 것, ‘예’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얼굴 표정, 시선, 억양, 크기, 제스처, 몸동작 등은 모두 구어를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의미 전달을 보다 뚜렷하게 한다. 이러한 비도구적 체계는 말이나 낱말을 강조할 때 말과 함께 사용되어 의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양이나 공간적 느낌을 표현할 때,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말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Best, Heller, & Bigge, 2005).

4) 몸짓상징의 대체성

몸짓상징은 온전히 구어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 있다. 시끄러운 거리에서는 말보다 ‘이리 오라’고 손짓하거나 또는 ‘여기’를 표시하기 위해 높이 손을 드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최고’라는 뜻을 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긍정의 표시로, 가로 젓는 행위는 부정의 표시가 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는 얼굴 표정이나 눈짓 등을 수반한 몸짓상징은 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 수단 뿐만 아니라 구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이다.

4 몸짓상징의 기능

몸짓상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 기능

- 구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의 대안적 언어 학습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어 습득을 도울 수 있다.
- 몸짓상징을 통한 중요한 단어의 강조와 구어의 시각화는 주의 집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어 대화를 도울 수 있다.
- 다른 사람과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의사소통하려는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 사용은 의사소통 의도를 비롯한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도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체계를 학습하거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2) 학습 참여 기능

- 의사 표현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며,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

3) 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능

-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려는 동기를 높일 수 있다.
- 몸짓상징을 통한 의사소통은 자해 행동, 공격 행동과 같은 도전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몸짓상징의 강점

몸짓상징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 학생의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에 맞추어 표현 방법을 찾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으며 의사소통 방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다.
-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에 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지능력의 요구 수준이 낮다. 특별히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표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또한 관습적 표현에서 개발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대화 상대들이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 의사소통 판이나 의사소통기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연습 없이도 얼굴 표정, 몸짓, 손을 이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소통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대화의 흐름이 단절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구어 체계를 대체하거나 구어와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구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낱말을 강조하여 의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이나 수업 시간 등 실생활 장면 속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가정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움직임이 많거나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의견이나 생각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며 쉽게 배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와 유지 효과가 높다.

그러나 몸짓상징은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몸짓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둘째, 관습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이 많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사용하는 몸짓상징의 어휘 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몸짓상징 외에 보다 확장적인 의사소통 체계의 접근과 지도가 필요하다. 몸짓상징이 필요한 대상과 시기를 잘 판단하여 교육하고, 학생의 의사소통이 발전되어 가는 것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의사소통이 보다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몸짓상징의 다양한 사례

이미 국외에서는 의사소통 요구가 있는 학생을 위한 몸짓상징이 개발되어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몸짓상징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구크

구크(GuK)는 언어 발달과 구어에 특별한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보완적인 의사소통 체계이다. 주요 대상은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대화를 할 때 의미 전달에 꼭



정지, 기다리다



안녕



미안해



선생님

[그림 I-1] 독일의 구크 예시

※출처: Deutsches Down-Syndrom InfoCenter, (7. Aufl.) (2000). Sprechen lernen mit GuK1, 2. Alphabetische Ordnung der Gebärdenbilder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구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손 동작어로 개발하였다. 구크는 의사소통을 위해 손 동작어와 그림 카드를 함께 사용하여 구어를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소통 체계이다.

2) 영국의 마카톤

마카톤(Makaton)은 영국 수어(British Sign Language, BSL)를 쉽게 만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청각중복장애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개발되었다. 대화 중 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구어의 어순대로 표현할 때, 주요 단어나 핵심 어휘에 해당하는 손 표현과 상징을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의사소통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단순 언어장애, 감각 장애 및 후천성 신경학적 장애를 지닌 학생과 성인에게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0개국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어와 문화적 요구에 맞게 수정되어 보급되었다.



[그림 I-2] 영국의 마카톤의 예시

※출처: Singing Hands UK(2013, 12, 22.). Singing Hands: Three little monkeys - with Makaton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mZBZ8J1R_yU&feature=youtu.be

3) 영국의 시그널롱

시그널롱(Signalong)은 영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몸짓상징 체계이다. 구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용하는 대안적인 손 표현 방식으로, 핵심 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운증후군이나 감각장애 학생들, 그리고 신경질환 및 뇌졸중 환자 등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대안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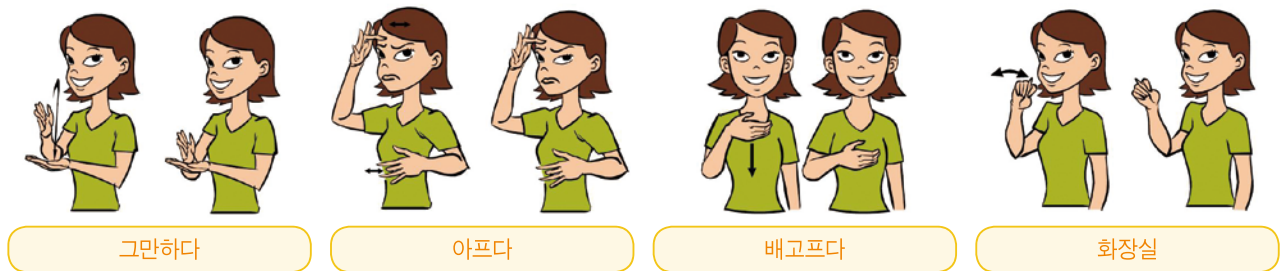
[그림 I-3] 영국의 시그널롱의 예시

※출처: The Signalong Group(2018). Resources: The Basic Vocabulary set, also available as a dictionary, is a collection of over 1,600 signs of everyday nouns, verbs and concepts. Retrieved from <http://www.signalong.org.uk>



4) 미국의 베이비사인

베이비사인(Baby Sign)은 영아들이 사용하는 몸짓, 손짓, 표정, 울음 등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보완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베이비사인은 영아들의 신체적 발달 및 운동 기능, 인지·언어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몸짓을 통해 말하기가 완성될 때까지 영아-양육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Goodwyn, Acredolo, & Brown, 2000).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동작을 베이비사인으로 만들어서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영아가 베이비사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1-4] 미국의 베이비사인의 예시

※출처: Baby Sign Language (2018).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sing Sig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www.babies-and-sign-language.com>.

5) 기타

그밖에 국내에서 개발된 AAC 시스템인 마이토키(MyTalkie)에 사용된 이화 AAC 상징에도 몸짓을 표상화하는 그림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다양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몸짓 표현을 이용한 AAC 상징의 예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손담」



II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

1.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 원리
2. 몸짓상징「손담」어휘 목록



1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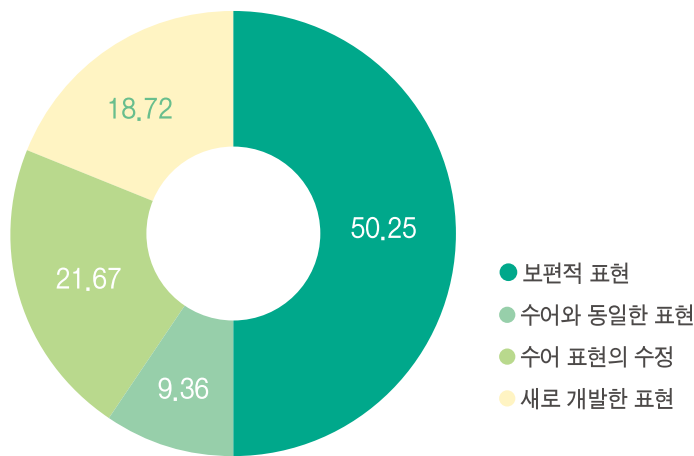
몸짓상징「손담」표현은 시각중복, 지체중복, 청각중복, 지적자폐성장애 등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각 장애영역별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최대한 부합되는 최선의 표현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발 원리를 따랐다.

1) 몸짓상징「손담」표현 개발의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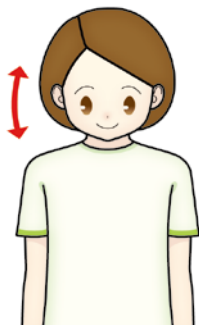
몸짓상징「손담」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표현 형태를 사용한다. 각각의 표현은 한 가지 표현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중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 모든 연령대의 비구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사용 대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다른 나라의 몸짓상징 표현이 어린 연령층이나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손 표현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되, 생각, 의도, 감정 등이 드러나도록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터치 단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뺨기, 당기기, 밀기, 가리키기, 상대방 쳐다보기와 같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움직임을 포함시켰다.

몸짓상징「손담」표현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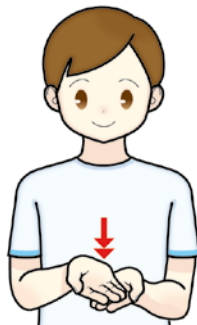


- 몸짓상징「손담」의 표현에는 문화적으로 정의되거나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몸짓을 포함시켰다.



예(응, 그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기



주세요

양손 모아 앞으로 내밀기



조용히 하다(조용히)

검지를 펴서 입에 대기



- 표현 개발을 위해 한국 수어와 해외 몸짓상징 표현(INSITE, 마카톤, GuK 등)을 참고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가장 쉽게 표현하고 배우며, 상대방이 쉽게 뜻을 예측하고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단순화시켜 개발하였다.
- 직관적이어서 알아보기 쉽고 표현하기 쉬운 한국수어는 그대로 차용하였다.



고기



친구

- 한국수어의 표현을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표현하기 쉽게 변형하였다.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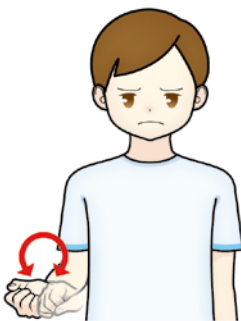
집 모양에서 한 손 내리기



예쁘다

검지를 펴서 손끝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불에 대고 있기

-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몸짓 표현을 기초로 하여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불편해요



다른 것 주세요

2) 몸짓상징「손담」 표현 개발 방향

-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서 확장될 수 있는 어휘로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 사용 대상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어휘 표현의 개수를 가급적 감소시킬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할 수 있는 어휘들은 같은 표현으로 개발하였다.



먹다/식사/간식



마시다/목마르다/물

- 한 가지 표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옷을 입다/팬티/바지/치마



자다/졸리다/눕다

- 몸짓상징을 대학생이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로 보았다.
- 시대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표현으로 개발하였다.
- 유아에서 성인까지 통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의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 혐오적인 표현이나 연령에 부적절한 표현인지 고려하였다.



소변보다/화장실 - 노크하듯 주먹 흔들기



대변보다 - 손을 오므려 내리기

- 장애 유형별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필요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활용 및 확장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 장기적으로 지도하면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습득 가능한 표현인지 고려하였다.
- 동작이 학생의 도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인지 고려하였다.
- 몸짓상징 표현 간에 혼동되는 유사한 표현이 없도록 유의하였다.
- 학교와 가정 등의 현장 보급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
- 다양한 장면(집,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휘인지 고려하였다.
- 표현 개발 이후 실시할 관련된 성인 대상 교육과 몸짓상징 인식 개선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홍보가 용이한 방향으로 자료가 개발되도록 하였다.



2 몸짓상징「손담」어휘 목록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몸짓상징「손담」어휘의 수는 272개이며, 표현의 수는 204개이다. 개발된 표현 수가 어휘 수보다 적은 것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II-1〉에 전체 어휘를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표 II-2〉에는 13개의 범주에 따른 몸짓상징「손담」어휘를 표현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1〉 몸짓상징「손담」어휘 목록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1	가다	63	30	꺼내다	85
2	가렵다	64	31	꽃	86
3	가방	65	32	끄다	87
4	가방을 메다	65	33	끝나다	88
5	가방을 벗다	211	34	끼다	89
6	가족	66	35	나(저요, 제가 할래요)	90
7	간식	127	36	나누다(나눠 주다)	91
8	같다	67	37	나무	92
9	건다	68	38	남자	93
10	걸레	69	39	낮	94
11	걸레로 닦다	69	40	내려가다	177
12	계단	70	41	(차에서) 내리다	95
13	고기	71	42	내일	96
14	고맙다	72	43	냄새 맡다	97
15	과일	73	44	냉장고	98
16	과자	74	45	넓다	248
17	괜찮다	75	46	넣다	99
18	교실	76	47	노래	100
19	국	77	48	노래하다	100
20	그릇	78	49	놀다	101
21	그림(그림을 그리다)	158	50	농담(농담이에요)	102
22	그만하다(멈추다)	79	51	누가	103
23	글씨를 쓰다	199	52	누나	204
24	기다리다	80	53	눈(눈이 오다)	104
25	기분 나쁘다	260	54	눕다	217
26	기저귀	81	55	느리다	105
27	기차	82	56	다 함께	106
28	김치	83	57	다르다	107
29	깨끗하다	84	58	다른 것 주세요	108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59	다시	109	97	바깥(밖으로)	137
60	다음에	220	98	바다	138
61	다치다	110	99	바지	179
62	다했다	88	100	받다	139
63	달(달이 뜨다)	111	101	밤	140
64	담다	99	102	밥	141
65	대변보다	112	103	배고프다	142
66	던지다	113	104	버스	143
67	덥다	114	105	(신발, 양말을) 벗다	144
68	돈	115	106	병원	145
69	돕다	116	107	보다	146
70	동생	117	108	보청기	147
71	두드리다(치다)	119	109	부엌(주방)	148
72	듣다(노래, 음악을 듣다)	118	110	불	149
73	때리다	119	111	불편하다	150
74	뜨겁다	120	112	비(비가 오다)	151
75	마스크	135	113	비누	152
76	마시다	121	114	빛	247
77	만들다	122	115	빠르다	153
78	말하다	123	116	빨대	154
79	맞다 *때리다의 반대말	124	117	빨리	153
80	맵다	83	118	빵	155
81	머리 감다	125	119	빼다	156
82	머리 빗다	126	120	사과	73
83	먹다	127	121	사다	115
84	모르다	128	122	사랑하다	157
85	모자	129	123	사진(사진을 찍다)	158
86	모자를 쓰다	129	124	산	159
87	목마르다	121	125	생각하다	160
88	목욕하다	130	126	생리대	81
89	무섭다	131	127	생선	161
90	무엇을	103	128	생일	162
91	문	132	129	생일 파티	162
92	문을 닫다	133	130	서다(일어서다)	163
93	문을 열다	134	131	선생님	164
94	물	121	132	세수하다	165
95	미세 먼지	135	133	소변보다	261
96	미안하다	136	134	수건	166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135	수건으로 닦다	166	173	언제	103
136	수영하다	167	174	얼굴	193
137	손가락	168	175	엄마	194
138	쉬다	252	176	없다	195
139	쉽다	169	177	에스컬레이터	196
140	스탠더(기립훈련기)	163	178	엘리베이터	197
141	슬프다	208	179	여자	198
142	시작하다	170	180	연필	199
143	식당	148	181	예(응, 그래)	200
144	식사	127	182	예쁘다	201
145	(신발, 양말을) 신다	171	183	오늘	232
146	신발	172	184	오다	202
147	싫다	173	185	오른쪽	203
148	심심하다	174	186	오빠	204
149	씻다	152	187	올라가다	209
150	아기	175	188	왜	205
151	아니요	176	189	왼쪽	206
152	아래	177	190	우유	207
153	아래옷을 벗다	178	191	울다	208
154	아래옷을 입다	179	192	위	209
155	아빠	180	193	윗옷	210
156	아이스크림	181	194	윗옷을 벗다	211
157	아침	94	195	윗옷을 입다	212
158	아프다	182	196	유모차	263
159	안(안으로)	183	197	음악	100
160	안경	184	198	의사	213
161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85	199	의사소통기기(태블릿PC)	214
162	안다(안아주다)	186	200	의자	188
163	안 돼 *강한 금지의 의미	187	201	이름	215
164	앉다	188	202	인공와우	147
165	알다	189	209	입을 막다	135
166	약	190	204	있다	216
167	양치질하다	244	205	자다	217
168	어디서	103	206	자동차	218
169	어떻게	103	207	작다	219
170	어렵다	191	208	잘하다	229
171	어제	192	209	잠깐만(잠깐 기다려, 이따가)	220
172	언니	204	210	장난(장난이예요)	102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일련번호	어휘	페이지
211	저기요(부르는 말)	221	242	치약	242
212	적다(조금)	219	243	친구	243
213	점자를 짚다	222	244	칫솔	244
214	점필	222	245	컴퓨터	245
215	젓가락	223	246	컴퓨터를 하다	245
216	정리하다	224	247	컵	246
217	젖다	225	248	켜다	247
218	조심하다	226	249	크다	248
219	조용히 하다(조용히)	227	250	(차에) 타다	249
220	줄리다	217	251	텔레비전	250
221	좀 더	228	252	텔레비전을 보다	250
222	좋다	229	253	팬티	179
223-1	주다	230	254	포크	251
223-2	주세요	231	255	피곤하다	252
224	준비하다	224	256	하고 싶다	253
225	지금	232	257	하늘	254
226	지루하다	174	258	학교	255
227	지하철(전철)	82	259	할머니	256
228	집	233	260	할아버지	257
229	차갑다	234	261	함께	258
230	창문	235	262	함께하다	258
231	창문을 닫다	236	263	해	247
232	창문을 열다	237	264	행복하다	259
233	책	238	265	형	204
234	책을 펴다	238	266	화나다	260
235	천천히	105	267	화장실	261
236	청소하다	239	268	확대경	262
237	축하하다	240	269	휠체어	263
238	춤	241	270	휴대전화	264
239	춤추다	241	271	휴일	265
240	춡다	234	272	휴지	266
241	치마	179			





















〈표 II-2〉 범주 별 몸짓상징 「손담」 어휘 및 표현 목록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사람 및 호칭	나(저요, 제가 할래요)		90	사람 및 호칭	의사		213
	엄마		194		여자		198
	아빠		180		남자		93
	할머니		256	기분 및 감정	하고 싶다		253
	할아버지		257		좋다/잘하다		229
	오빠/형/언니/누나		204		싫다		173
	동생		117		예쁘다		201
	가족		66		사랑하다		157
	아기		175		행복하다		259
	선생님		164		울다/슬프다		208
	친구		243		화나다/기분 나쁘다		260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기분 및 감정	무섭다		131	건강 및 상태	뜨겁다		120
	괜찮다		75		덥다		114
	쉽다		169		차갑다/춥다		234
	어렵다		191		가렵다		64
	심심하다/지루하다		174		조심하다		226
건강 및 상태	약		190		휠체어/유모차		263
	아프다		182		안경		184
	다치다		110		확대경		262
	불편하다		150		보청기/인공와우		147
	피곤하다/쉬다		252		미세 먼지/마스크/ 입을 막다		135
	자다/졸리다/눅다		217	음식 및 식사	먹다/식사/간식		127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음식 및 식사	배고프다		142	음식 및 식사	아이스크림		181
	마시다/목마르다/물		121		숟가락		168
	밥		141		젓가락		223
	국		77		포크		251
	우유		207		그릇		78
	빵		155		컵		246
	고기		71		빨대		154
	생선		161		냉장고		98
	김치/맵다		83	위생 및 의복	화장실/소변보다		261
	과일/사과		73		대변보다		112
	과자		74		휴지		266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위생 및 의복	얼굴		193	위생 및 의복	청소하다		239
	세수하다		165		수건/수건으로 닦다		166
	비누/씻다		152		걸레/걸레로 닦다		69
	칫솔/양치질하다		244		윗옷		210
	치약		242		윗옷을 입다		212
	목욕하다		130		윗옷을 벗다/가방을 벗다		211
	머리 감다		125		아래옷을 입다/ 바지/치마/팬티		179
	머리 빗다		126		아래옷을 벗다		178
	기저귀/생리대		81		모자/모자를 쓰다		129
	젖다		225		신발		172
	깨끗하다		84		(신발, 양말을) 신다		171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위생 및 의복	(신발, 양말을) 벗다		144	사회성 어휘	돕다		116
	끼다		89		함께/함께하다		258
	빼다		156		다 함께		106
사회성 어휘	예(응, 그래)		200		돈/사다		115
	아니요		176		농담(농담이에요)/ 장난(장난이에요)		102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85		의사소통기기 (태블릿PC)		214
	고맙다		72	행동 및 정도	주다		230
	미안하다		136		주세요		231
	안 돼 *강한 금지의 의미		187		받다		139
	저기요(부르는 말)		221		다른 것 주세요		108
	축하하다		240		좀 더		228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행동 및 정도	있다		216	행동 및 정도	보다		146
	없다		195		듣다 (노래, 음악을 듣다)		118
	같다		67		말하다		123
	다르다		107		조용히 하다 (조용히)		227
	그만하다(멈추다)		79		냄새 맡다		97
	잠깐만 (잠깐 기다려, 이따가)/ 다음에		220		생각하다		160
	기다리다		80		알다		189
	시작하다		170		모르다		128
	끝나다/다했다		88		앉다/의자		188
	정리하다/준비하다		224		서다(일어서다)/ 스탠더(기립훈련기)		163
	다시		109		걸다		68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행동 및 정도	가다		63	행동 및 정도	넣다/담다		99
	오다		202		꺼내다		85
	켜다/빚/해		247		안다(안아주다)		186
	끄다		87		나누다(나눠 주다)		91
	문을 열다		134		던지다		113
	문을 닫다		133		때리다/두드리다(치다)		119
	창문을 열다		237		맞다*때리다의 반대말		124
	창문을 닫다		236		크다/넓다		248
	(차에) 타다		249		작다/적다(조금)		219
	(차에서) 내리다		95		빠르다/빨리		153
	만들다		122		느리다/천천히		105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여가 및 놀이	놀다		101	장소 및 위치	부엌(주방)/식당		148
	노래/노래하다/음악		100		문		132
	춤/춤추다		241		창문		235
	수영하다		167		계단		70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보다		250		엘리베이터		197
	휴대전화		264		에스컬레이터		196
	컴퓨터/ 컴퓨터를 하다		245		자동차		218
장소 및 위치	집		233		버스		143
	학교		255		기차/지하철(전철)		82
	교실		76		위/올라가다		209
	병원		145		아래/내려가다		177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장소 및 위치	안(안으로)		183	자연 및 동식물	비(비가 오다)		151
	바깥(밖으로)		137		눈(눈이 오다)		104
	왼쪽		206		달(달이 뜨다)		111
	오른쪽		203		꽃		86
시간 및 때	낮/아침		94		나무		92
	밤		140		산		159
	지금/오늘		232		바다		138
	내일		96		하늘		254
	어제		192		불		149
	생일/생일 파티		162	학습 및 진로	가방/가방을 메다		65
	휴일		265		책/책을 펴다		238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범주	어휘	표현 사진	페이지
학습 및 진로	연필/글씨를 쓰다		199	기타	이름		215
	점필/점자를 찍다		222		누가/언제/어디서/ 무엇을/어떻게		103
	사진(사진을 찍다)/ 그림(그림을 그리다)		158		왜		205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손담」



III



몸짓상징「손담」사용 및 지도 방법

1. 몸짓상징「손담」의사소통 방법 및 공통 유의 사항
2. 몸짓상징 표현과 관련된 장애영역별 특성
3. 몸짓상징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방법



1 몸짓상징「손담」의사소통 방법 및 공통 유의 사항

새로 개발된 몸짓상징「손담」표현은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쉬우며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이 몸짓상징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의사소통 기능의 발달을 촉진하여 때로는 구어의 발달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몸짓상징 의사소통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Q&A

Q 제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말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몸짓상징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쳤을 때 혹시 말이 더 늦어지거나 아예 말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A 손이나 몸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즐거움을 느낄수록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사소통의 동기가 생깁니다. 몸짓상징은 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학생들의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위 학생의 경우에는 말로 의사소통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어떤 어휘 순서로 몸짓상징을 가르쳐야 하나요?

A 가르칠 어휘의 순서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학생의 흥미,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가르칠 어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몸짓상징「손담」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몸짓상징 지도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의사소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계 형성이다. 관계 형성은 소통의 욕구를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 배우고자 하는 동기로 바뀔 수 있다. 몸짓상징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과 긍정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이 의사소통 상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표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몸짓상징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상동 행동, 자기 자극 행동, 산만한 행동 등이 완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몸짓상징 의사소통 방법이 효율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적용할 몸짓상징 의사소통에 관하여 가족, 친구, 학교 교직원, 복지관 직원, 지역사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등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안내한다.

2) 몸짓상징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가르쳐야 할까?

- 몸짓상징 지도의 주도적인 역할은 교사 또는 보호자, 복지관 직원 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몸짓상징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생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표현을 가르친 경우, 또는 가정에서 가족이 표현을 가르친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학생이 배운 표현을 생활 속에서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생에게 몸짓상징을 가르칠 때는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하여 통합학급의 구성원들, 특히 친구들도 몸짓상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구와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험은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학생이 사용하는 표현을 학생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 위해 ‘의사소통 알림장’과 ‘개인 표현 사전’의 사용을 권한다. 예를 들면, 몸짓상징 지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와 가족, 복지관 직원 등은 학생에게 적용한 표현과 방법을 ‘의사소통 알림장’에 간단하게 기록하여 학생의 가방에 넣어두기로 약속하고 수시로 공유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학교 직원, 자원봉사자, 상점 직원 등 학생이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의사소통 알림장’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에 적용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학생이 사용하는 표현과 어휘는 복사하여 ‘개인 표현 사전’에 붙여서 학생이 항상 휴대하게 한다.

다음은 담임 교사가 현재 지도하고 있는 표현을 ‘의사소통 알림장’에 적어 놓은 것이다. 표현 사진은 표현 카드를 복사해 붙인 것이다.



의사소통 알림장



개인 표현 사전

[그림 III-1] 의사소통 알림장과 개인 표현 사전의 예

- 몸짓상징은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지도하며, 실제 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확장되고 분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음식과 관련된 표현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알려주어 점차 다양한 표현으로 확장 시켜줄 수 있으며, 어떤 표현은 학교와 가정, 복지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의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3) 어떤 어휘를 가르쳐야 할까?

- 몸짓상징을 지도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표현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이 흥미를 보이는 어휘,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어휘, 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 등을 우선 지도하여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부터 지도하여 추상적인 의미의 어휘로 확대해 간다. 예를 들면, ‘농담이에요’ 표현보다는 ‘휴지’를 사용할 때마다 반복해서 표현을 지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 한 가지 어휘에 대한 표현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 어미가 다른 품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쁘다’ 표현은 ‘예쁜’, ‘예쁘지?’, ‘예쁘게’, ‘예쁘지다’, ‘예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본형으로 제시된 어휘일지라도 여러 가지 활용 상황에 맞게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몸짓상징 사용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 전달에 가장 중요한 어휘 한 개만 표현하다가 점차 여러 어휘를 연결하거나 응용하여 표현의 범위를 확장해간다. 예를 들면, 개발된 표현 중에서 ‘식당’은 ‘먹다’+‘장소’로 표현한 점을 응용하여 개발되지 않은 표현 ‘내 방’은 ‘나’+‘장소’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을 연결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생이 일상생활 중에 머무는 장소마다 주요 활동별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를 정리해본 후 그중에서 우선 필요 어휘를 선정하고 이 우선 필요 어휘 중에서 장소별 최우선 필요 어휘를 선정하고, 교사와 보호자 등이 함께 의논하여 학생의 최우선 필요 어휘를 정하여 먼저 지도한다. 다음은 가르칠 어휘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환경 분석 표이다.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이 표를 응용할 수 있다.

〈표 III-1〉 어휘 선정을 위한 환경 분석의 예

장소	활동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	우선 필요 어휘	장소별 최우선 필요 어휘	학생의 최우선 필요 어휘
가정	식생활	배고프다, 먹고 싶다. 목마르다, 물, 밥, 과자, 빵, 더 주세요, 배부르다, 숟가락, 젓가락, 뜨겁다, 차갑다	배고프다, 먹고 싶다, 목마르다	화장실, 소변, 대변, 씻다, 아프다, 조심하다	화장실,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도와주세요
	의생활	속옷, 바지, 상의, 양말, 입다, 벗다, 단추 끼우다, 단추 풀다, 지퍼 올리다, 지퍼 내리다	속옷, 바지, 상의, 입다, 벗다		
	위생생활	화장실, 소변, 대변, 휴지, 씻다, 비누, 수건, 물 내리다, 치약, 칫솔	화장실, 소변, 대변, 씻다		
	건강생활	아프다, 병원, 약, 주사, 열이 나다, 넘어지다, 피가 나다, 조심하다	아프다, 조심하다, 약		
	여가생활	컴퓨터, 텔레비전, 수영하다, 게임, 마우스, 음악, 노래, 영화, 운동	텔레비전, 컴퓨터, 수영하다, 음악		
학교	담임 시간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알림장, 실내화, 가방, 사물함, 준비물, 날씨, 기다리다, 집에 가다, 좋다, 싫다,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가방	안녕하세요/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친구, 도와주세요, 화장실	
	교과 수업	선생님, 친구, 책, 교과서, 연필, 교실, 시간표, 운동장, 체육복,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그만 하다, 도와주세요, 쉬고 싶다	선생님, 친구, 도와주세요		
	식사 시간	식판, 컵, 물,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더 주세요, 그만 먹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뜨겁다, 차갑다	더 주세요, 그만 먹다		
	쉬는 시간	화장실, 소변, 대변, 친구, 운동장, 공놀이, 게임, 매점, 간식	화장실, 소변, 대변		



4) 새로 개발된 어휘와 표현만 사용해야 할까?

- 개발된 어휘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이 이미 습득하여 활용하던 기존의 몸짓상징 표현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오히려 이러한 기존의 표현들을 학생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 몸짓상징 표현으로 새롭게 개발된 어휘를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면 앞으로 의사소통 상대의 범위를 확장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개발된 표현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간다.
- 개발된 기본 표현을 어려워할 때, 장애영역별로 제시된 팁을 참고하여 쉽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몇몇 어휘의 경우에는 장애영역별로 제시된 수정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장실/소변보다’ 표현은 한 손 주먹을 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톱 주변에 세운 후 노크하듯이 까닥거리는 것이지만, 주먹을 세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영역별 적용 팁에 제시한 것처럼 책상을 두드려 표현할 수도 있고 손바닥을 두드려 표현할 수도 있다.
- 개발된 어휘 목록에 없는 어휘일지라도 그 의미가 비슷한 경우에는 개발된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된 표현에 ‘화나다/기분 나쁘다’는 있지만 ‘짜증나다’, ‘속상하다’ 표현은 따로 없다. 하지만 ‘짜증나다’, ‘속상하다’를 표현하기 위해 ‘화나다/기분 나쁘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개발된 표현 외에 더 많은 몸짓상징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 또는 가족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한국수어를 참고하여 쉬운 표현은 그대로 차용할 수 있으며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5)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 원활한 몸짓상징 의사소통을 위해서 손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학생의 표정, 눈짓, 목소리, 몸의 움직임, 행동 등을 통해 학생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이때 손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상황과 의미에 맞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행동 등은 학생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손 표현을 가르칠 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때로는 촉각 단서, 청각 단서, 시각 단서, 후각 단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감각 단서를 주면 오히려 집중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단서만 주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촉각 단서로써 휴지를 만지게 하고 나서 청각 단서로써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학생의 손을 잡고 손 표현을 함께 한 후 화장실에 간다.
- 학생에게 손 표현을 가르칠 때 함께 손을 잡고 표현해 보는 방법,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동시에 따라 하는 방법,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따라 하는 방법 등 학생의 수행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 한 손으로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학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으로 표현하며, 양손으로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에는 좌우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표현한다.(그림 III-2 참조)
-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어휘에 대한 표현을 가르칠 때, 관련된 실물이나 그림 또는 사진을 보여주어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컵’ 표현을 가르친다면 컵 사용 직전이나 직후에 지도하며, ‘달’ 표현을 가르친다면 달이 떠 있는 밤이나 달 그림 또는 사진을 보여 표현을 가르칠 수 있다.
- 상태를 나타내는 ‘졸리다’, ‘춥다’, ‘불편하다’ 등의 표현과 감정을 나타내는 ‘무섭다’, ‘행복하다’, ‘슬프다’ 등의 표현은 관련된



[그림 III-2] 사용한 손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표현의 예

상황 중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추운 날 학생과 함께 문을 열어 추운 날씨를 느껴본 후, 함께 ‘춥다’ 손 표현을 하고 외투를 입는다. ‘무섭다’ 표현은 천둥이 치는 등의 학생이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손 표현을 하며 ‘무서워?’라고 묻고, ‘괜찮아’라고 말하며 토닥이며 안심시킨다.

- 사람과 호칭에 관련된 표현을 가르칠 때, 대상이 되는 실제 인물을 가리키며 표현을 알려주거나 관련 인물의 실제 사진을 보여주며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옆에 함께 계실 때 ‘할머니’ 표현을 가르치거나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표현을 함께 해 본다.
-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대하며 학생이 아직은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관찰하거나 모방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표현하여 모델이 되어주고 기다려준다.
- 학생의 자발적인 미세한 몸짓상징 표현에도 적극적으로 즉각 반응하여 표현의 즐거움과 의사소통 성공의 경험을 제공한다. 긍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반응은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의사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다. 학생이 상대의 질문에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기, 기분이나 감정 표현하기, 의견 주고 받기 등 다른 사람과 대화의 폭을 점차 넓혀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몸짓상징을 습득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때로는 촉진과 강화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의사소통에 사용하던 손 표현 ‘화장실’을 외식을 하기 위해 간 식당에서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생이 ‘화장실’ 손 표현을 하면 즉시 칭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할 때, 상대와 마주하거나 시선을 맞추며 몸짓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이 표현에 집중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 성공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해갈 수 있다.
- 몸짓상징 표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신체상(body-image) 형성을 위한 활동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노래 박자에 맞춰 손뼉치기, 친구와 어깨동무하기, 인체와 관련한 노래 부르며 관련 신체 부위를 손으로 짚기 등의 활동은 신체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구슬 꿴기, 블록 쌓기, 건반 누르기, 손가락 놀이 등은 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6)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까?

-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과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할 때 구어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학생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발음하기 쉬운 단어, 평소에 많이 활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길게 표현하기보다는 의미 전달에 필요한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말한다. 반어법은 의미 이해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황마다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은 학생에게 목소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말로 의사소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학생이 몸짓상징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말을 하면 정확한 발음이 아닐지라도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며, 그 단어에 대한 몸짓상징은 서서히 소거하고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물체 단서, 그림 카드, 그림의사소통판, 하이테크 AAC 기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병행한다.

② 몸짓상징 표현과 관련된 장애영역별 특성

1)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1)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의 특성

① 인지적인 어려움

- 중도 지적장애의 경우 적절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의집중 하는 시간이 짧다. 장·단기 기억력이 부족하여 이전에 배운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며, 학습 속도 또한 느리다. 이에 매우 구체적이고 학생에게 의미있는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상대방을 모방하는 것이 의사소통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방 기술 자체에 있어서도 결함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 또래 등 대화 상대가 함께 몸짓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모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개념들에 대해 먼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제한된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의미나 의도를 보이지 않거나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 하더라도 대화 상대가 그러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은 발성과 표정, 몸짓이나 자세, 긴장 정도, 방향의 움직임, 상대방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변의 물체를 사용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형태를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언어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구어가 아예 발달하지 않은 경우는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 일부 학생들은 상대방의 말을 의미없이 자동적으로 반복하며 따라하는 반향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반향어가 적절한 형태의 언어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기술 및 상호작용의 부족

- 동기 유발에 어려움을 보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주위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경향이 있어 무기력

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학생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관심을 유발하고,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

-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속된 거부감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수 있다. 이에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자폐성장애의 경우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상호작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나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행동적 특성

- 언어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구어를 통한 표현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의사나 주변 환경의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때는 도전 행동(예: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자폐성장애의 경우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형태의 제한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범위의 관심 영역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일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동일성을 추구하거나,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기능상의 습관,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집착 등을 보일 수 있다.

(2)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학생 지도의 유의점

① 몸짓상징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

-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몸짓상징을 표현하거나 학습할 때 구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시각적 자료나 청각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다중적인 감각을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델링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교수 전략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 따른 어휘나 몸짓 표현을 제시할 때 청각적 단서를 함께 제시하거나 다양한 시각적 자료(예: 포스터, 그림 카드, 동영상, 상황별 색깔 인덱스 등)나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모델링 전략 등을 활용하여 교수한다.

②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 도전 행동과 연계

- 중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도전 행동을 종종 보이기도 한다. 도전 행동에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전 행동의 기능적 분석을 통해 학생이 보이는 행동의 원인과 기능,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그 목적과 기능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가진다면 도전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몸짓상징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특정 몸짓 표현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유의

- 몸짓상징의 특정 동작이나 표현이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을 유발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몸짓상징을 동작으로 표현함에 있어 유의한다.
- 특별히 자폐성장장애학생의 경우 상동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손 표현이나 새로운 몸짓상징을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또 다른 상동 행동이나 반항어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방 단계에서는 학습 회기당 손 표현이나 몸짓상징 표현을 한 번만 실행하도록 하며, 몸짓상징 사용 시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지체중복장애

(1) 지체중복장애학생의 특성

① 의사소통 의도의 미약함

- 학생의 비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이라도 학생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상태에 따른 표정, 목소리, 행동, 대화 맥락 등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의 의사소통 신호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고 해석해주어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도한다.

② 인지능력의 제한

- 인지적인 문제를 가질 경우 주의집중력이 짧고 높은 의존성을 나타내며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 부족, 표현력 결여 등으로 새로운 몸짓상징 및 표현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신체의 좌우, 양손 협응, 위아래 등 공간 개념이 낮은 학생들은 몸짓상징의 표현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③ 구어의 손상, 구강기관의 마비나 경직으로 인한 표현 언어 능력의 제한

- 구강 주변의 근육 조절과 협응의 문제로 인해 표현 언어 능력의 결함을 가진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의 대부분이 발달 초기에 신체 움직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탐색 활동 및 놀이의 경험이 제한되어 언어 습득 이전의 비언어적인 몸짓, 제스처 등의 언어전 행동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높은 근 긴장도로 인한 신체 표현의 어려움

- 근육 및 관절의 구축, 제한된 운동 범위로 인해 얼굴 표정, 소근육운동 조절과 적절한 자세 유지 및 신체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신체 표현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피로감을 유발한다. 지체중복장애학생은 구축으로 인해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양손의 협응 및 양손을 신체의 정중선 가운데로 모으는 동작 등이 어려우므로 손과 팔의 가동 범위를 고려하여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형태를 수정해야 한다.

⑤ 자세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확한 표현의 어려움

-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몸짓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좋지 않은 자세는 팔과 몸통의 안정감을 방해하여 몸짓상징의 표현을 방해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팔과 손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⑥ 새로운 몸짓상징 학습의 어려움

- 지체중복장애학생은 개별 학생마다 각기 다른 표현 방법, 이미 고착된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사용하는 고착된 패턴을 하나의 몸짓상징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짓상징 표현을 지도하더라도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⑦ 의사소통 기회의 부족,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의사소통 경험

-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상황은 학생이 스스로 표현하도록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는다. 학생도 본인이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투쟁하다보면 지치며, 결국 기다려주지 않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좌절되기도 한다. 반대로 주변인들이 학생의 요구를 미리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기회는 박탈된다.

많은 학생들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의도가 도전 행동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로 인한 실패감이나 좌절이 의사소통 요구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나 교사의 장기간의 일방적 지시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만들며, 의사소통 기회도 제한한다. 이로 인해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2) 지체중복장애학생 지도의 유의점

① 초기 몸짓상징 지도 시 유의 사항

-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민감성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의 주요 실패 원인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해 대화 상대들이 지나치게 모르거나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민감함은 학생의 본능적이고 비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시도를 강화하여 의사소통 체계로 정형화할 수 있다. 목소리, 눈짓, 작은 몸짓, 표정 등 몸으로 나타내는 미세한 표현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의사소통 지도는 시작된다. 학생의 표현이 미미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의도성을 지도한다.

② 자세 지도 관련 유의 사항

- 근긴장도가 높거나 근지구력이 약한 학생의 경우 편안한 자세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바르게 앉도록 지도한다.

③ 몸짓상징 표현 지도의 유의 사항

- 지체장애학생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몸짓상징 「손담」은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지체중복장애학생들은 잔존 능력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몸짓상징 「손담」의 표현은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 표현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지도한다. 한 가지 유형과 형태로 제한하지 말고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표현의 정확도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하는 손의 모양과 위치, 손의 움직임, 손 또는 손바닥 방향의 움직임,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짓상징 「손담」 표현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신체의 장애 부위에 따른 유의 사항

- 신체적인 제약을 보이는 영역이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편마비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신체 영역이 제한적이어서 한 쪽 손이나 발을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들마다 불편한 신체 부위나 영역이 달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므로 수정하여 지도한다. 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맥락에 맞게 한 손만 들어 올리도록 하거나,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의 동작만이라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⑤ 새로운 몸짓상징의 지도 시 유의 사항

- 몸짓상징 「손담」의 사용 목적은 주 양육자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범위와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미 학생이 습득한 관습적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연령에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지도한다.



⑥ 몸짓상징의 확장 시 유의 사항

- 초기의 몸짓상징 의사소통 방법과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 더 효율적인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일반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유도한다. 구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몸짓상징과 함께 구어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입 모양이나 발성(소리내기) 등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⑦ 자세 및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 휠체어나 특수 제작된 의자 및 책상과 보조기기 등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몸짓으로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휠체어용 책상 위에서 표현하거나 신체의 한 부분이나 한 손이라도 이용하여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3) 시각중복장애

(1) 시각중복장애학생의 특성

시각중복장애학생은 경험의 부족과 개념 이해, 모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리나 냄새, 촉각과 같이 다른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데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러, 몸짓상징이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잘못 인식되어 시각중복장애학생과의 몸짓상징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등한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들도 부모와 교사의 설명과 반복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몸짓상징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몸짓상징 사용과 관련된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다.

① 개념 이해와 언어 발달의 특성

- 시각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감각으로 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시각의 손상은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경험할 기회를 제한하며, 청각이나 촉각은 시각에 비해 단편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종합적인 정보 습득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령, 청각은 소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는 주지만 크기나 형태 등과 같은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 하늘, 안개, 구름, 슬픔, 기쁨 등과 같이 촉각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
- 경험의 부족이 누적되면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을 다른 장면에서 일반화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실제 장면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정보 접근의 제한과 경험의 부족은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언어 표현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보상되어 진다.

② 신체 표현의 모방과 자세 유지의 특성

-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시각을 통해 주변의 물체를 바라보고 손을 뻗거나 다가가는 등의 신체 활동에 동기를 가지거나, 가족이나 또래의 신체 행동을 모방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신체 운동 발달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청각·촉각 자극의 제시와 보행교육을 통해 신체 및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바른 자세나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 활동 기회와 지원을 통해 신체 및 운동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몸짓상징의 수용과 표현 특성

-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지, 친구가 옆에 오거나 갔는지, 주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말을 걸기도 한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 맞춤’대신 팔을 톡톡 치는 신체적 접촉을 사용해 의사소통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얼굴 표정이나 눈짓, 몸동작의 사용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 시각중복장애학생도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선이나 얼굴 표정, 자세의 변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몸짓을 한다.
- 시각중복장애학생들 중 대부분이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몸짓의 활용에 능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몸짓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 해 본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일 뿐 시각중복장애학생들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수·학습 환경과 관련된 특성

-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시각적 정보의 부족으로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환경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반복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다.
- 시각중복장애학생 중 시력이 전혀 없는 학생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빛이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어렴풋이 형태만 보는 경우도 있으며, 그 시력의 정도와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몸짓상징을 학습할 때에 필요한 보조기와 지원은 시각 손상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잔존시력을 이용하여 시각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한다.
- 그림이나 사진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을 설명해 준다. 또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해 주는 음성 자료, 관련된 실물, 입체 복사 등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 몸짓상징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에 부적절한 조명이나 빛의 번쩍임 등이 방해가 될 수 있다. 학생이 몸짓상징 「손담」 표현을 학습할 시에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시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저시력 학생이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각정보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화면 확대 프로그램의 도움 받을 수 있다. 단 확대경을 사용해 상을 확대시키면 그 만큼 시야는 좁아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글꼴 크기의 변화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글꼴 크기는 지면상에서는 18~20pt, 화면상에서는 12~14pt가 적절하다. 또한 행간은 160~180%, 자간은 25pt 이상으로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안승준 외, 2016).

(2) 시각중복장애학생 지도의 유의점

① 초기 몸짓상징 지도 시 유의 사항

- 부를 때에 부르는 말과 함께 어깨를 부드럽고 가볍게 쳐서 주위를 집중시킨다.
- 학생이 몸짓상징 표현 동작을 학습함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작의 큰 오류를 수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 아래 손’의 방법으로 학생이 교사의 손 위에 손을 얹어 자유롭고 능동적인 상황에서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II-3] '손 아래 손' 전략을 활용한 교사의 '신발' 표현 학습의 예이다.

교사가 신발의 몸짓상징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교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교사의 손 모양을 탐색하고 모방한다.

- 학생이 교사와 함께 몸짓상징을 익히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면, 학생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정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손이나 손목을 잡고 동작의 모양이나 방향을 안내하는 '손 위의 손' 방법을 활용하여도 좋다.

[그림 III-4]은 '손 위의 손' 전략을 활용한 '기차' 표현 학습의 예이다.

교사가 학생의 손목을 잡고 앞뒤로 학생의 팔을 움직이며 기차 표현의 동작의 모양과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 III-3] '손 아래 손' 전략



[그림 III-4] '손 위의 손' 전략

② 몸짓상징 표현 지도 시 유의 사항

-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몸짓상징의 표현보다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학생이 몸짓상징의 모양과 움직임을 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의 손을 잡거나 학생이 교사의 손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마련한다.
-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일관되게 약속한 위치와 방향으로 몸짓상징 표현을 제시한다.
-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몸짓상징 표현의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나누어 학생이 이미 표현할 수 있는 동작에서 새로 배우는 동작으로 변형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돈'의 몸짓상징을 지도할 때

표현 동작 학습 단계 1: 손가락을 모두 편다.

표현 동작 학습 단계 2: 엄지와 검지를 오므려 동그라미를 만든다.

-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몸짓상징 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축소어는 수어 표현을 손으로 만져서 의사소통 하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손 위에 상대방이 손을 올리고 몸짓상징「손담」 표현을 하며 대화 상대가 그 움직임을 느끼게 해 의사소통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촉각단서와 사물단서를 활용하여 동작을 학습한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이 몸짓상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해당하는 물체를 주며 물체의 이름을 반복하여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컵을 표현하려 시도할 때, 실제 컵을 학생의 손에 쥐어 주며 ‘컵’이라고 반복하여 말해주며 컵의 모양을 살펴보고 몸짓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과일/사과’의 몸짓상징을 지도할 때

표현 동작 학습 단계 1: 사과를 만져 과일/사과의 모양과 만지는 동작을 경험한다.

표현 동작 학습 단계 2: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모양을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싼 후 쓰다듬는다.



사물 단서를 활용한 몸짓상징 표현 학습



몸짓상징 표현 확인 학습

[그림 III-5] 사물 단서를 활용한 몸짓상징 표현 학습

- 공동수어는 학생의 손을 잡고 몸짓상징의 손 표현을 만들어 학생이 몸짓상징을 바르게 표현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공동수어를 사용하여 몸짓상징 표현을 학습 할 때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동수어는 학생에게 새로운 몸짓상징을 가르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다.
- 이 방법을 통해 정확한 몸짓상징 「손담」 표현법을 익힐 수 있다.
- 공동수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고 교사 주도적으로 몸짓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은 학생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배우는 과정이나 새로운 몸짓상징을 익히도록 돕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몸짓상징 표현이 방해 받지 않는다.
- ‘화장실’, ‘먹다’ 등과 같이 한 손으로 표현하는 몸짓상징을 공동수어로 학습하는 경우, 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시 유의 사항

- 시각정보를 청각이나 촉각정보로 바꾸어 제공한다.
- 몸짓상징 카드를 보기에 충분히 밝은 지를 확인하고 빛이 강한 실외에 있는 경우 눈부심을 피한다.
- 어떤 학생들은 수년 동안 점차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어 지기도 한다. 학생들은 빛에 민감하거나 시력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으며,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절반만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몸짓상징을 학습할 때 학생의 시력과 시야 등 특성을 수시로 살펴 교사와 자료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 저시력 학생을 위해 텔레비전은 최소 39dp(Display Port) 이상, 태블릿과 모바일은 최소 36dp 이상으로 글꼴 크기를 제공했을 때 최적의 가독성을 보인다. 그러나 글꼴 크기가 39dp 이상으로 제공될 경우, 제한된 시야의 제약으로 글꼴 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질 수 있다(안승준 외, 2016).
- 시기능 특성에 따라 교수 환경을 조성하고 몸짓상징 카드의 글자나 삽화의 크기, 대비, 조도,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을 전개한다.

4) 청각중복장애

- 청각장애학생들은 학생이 처한 교육 환경적 특성에 따라 구어, 수어, 필담, 독화 등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특수교육 환경에 있는 청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대부분 의사소통을 위한 1차적 언어로 한국 수어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청각장애 교육 영역에 널리 공유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한국 수어에 노출되어 있던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손담」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의사소통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각중복장애학생이 기존에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식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학생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유의한다.
- 다음의 특성을 가진 청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대체 가능한 몸짓상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손의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손의 움직임이 수어의 섬세한 동작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 인지적 장애로 인해 언어로서 수어가 가진 자의적인 특성과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표현할 수 있는 수어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손담」을 도입할 때에는 개별 학생의 필요에 의해 발달시키고자 하는 몸짓상징 표현 어휘 목록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 시각적으로 민감한 청각중복장애학생에게 몸짓상징「손담」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몸짓상징 핵심어휘를 그림과 사진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먼저 제시한다.
 - 교수할 목표 몸짓상징에 해당하는 사물, 상태, 상황, 장소, 모델의 행동 등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어휘가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몸짓상징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방법

몸짓상징과 몸짓상징 삽화나 사진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알리고, 선택하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손쉽고 자주 의사소통할 수 있다. 몸짓상징의 효과적인 교육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몸짓상징「손담」카드’와 ‘몸짓상징「손담」포스터’ 그리고 ‘몸짓상징「손담」동영상’등의 교수·학습자료를 함께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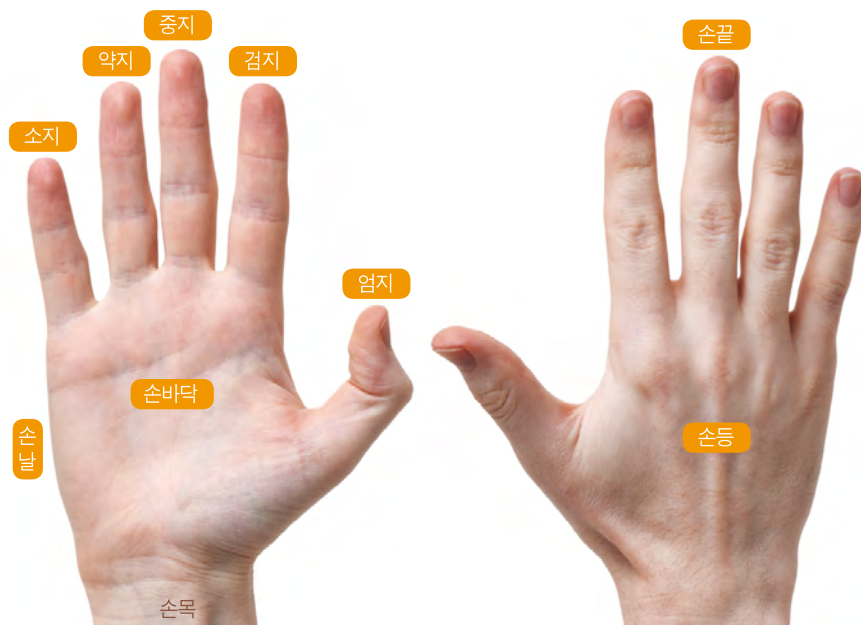
- 몸짓상징을 학습하고 활용할 때에 몸짓상징「손담」카드나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정, 접촉 등의 몸짓도 함께 사용한다.
- 몸짓상징은 사람 및 호칭, 기분 및 감정, 음식 및 식사, 위생 및 의복, 사회성 어휘, 행동 및 정도, 여가 및 놀이, 장소 및 위치,

시간 및 때, 자연 및 동식물, 학습 및 진로, 기타 어휘 등의 총 13개 범주로, 272개 어휘, 204개 표현에 따라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었다.

(1) 삽화와 사진의 구성과 활용

손 모양, 손바닥 방향, 위치 및 움직임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손의 부위의 명칭과 움직임 표현 기호를 확인한다. 삽화의 표현은 주로 오른손 잡이를 중심으로 표현되었지만 몸짓상징 표현 시에는 학생이 편안해 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손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단, 매번 동일한 손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몸짓상징 표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손 부분의 명칭



[그림 III-6] 손 부분의 명칭

② 움직임 표현 기호 안내





③ 삽화와 사진의 구성

- 272개 어휘에 따른 204가지의 표현은 손 표현을 중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삽화의 크기를 키우고 필요 이상의 명암이나 장식을 최소화 하였으며 배경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각적 명료함을 높였다.
- 삽화는 몸짓상징「손담」 표현의 명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로 구성하였다. 전 연령의 대상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너무 어리거나 높은 연령대를 피해 청소년기의 학생을 삽화로 담았다. 또한 성별에도 차별이 없도록 여성과 남성을 고루 배분하였다.
- 사진은 보다 다양한 연령의 인물의 등장을 통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포스터와 동영상 구성하고자 하였다. 사진의 등장인물들은 몸짓상징의 동작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팔과 손이 강조 될 수 있도록 단색의 반팔 윗옷을 착용하였다. 전문 모델보다 몸짓상징 개발에 함께한 연구진과 현장 교사 등이 모델이 되어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몸짓상징「손담」 표현을 친근하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 ‘오른쪽’과 ‘왼쪽’ 등 방향을 나타내는 몸짓상징의 삽화와 사진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반전되게 제시하였다.
- 삽화의 사진은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서 파일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교육 자료의 형태로 제작과 개작이 가능하다.



[그림 III-7] 학습용 카드의 삽화와 사진

(2) 몸짓상징「손담」카드의 구성과 활용

① 카드의 구성

- ‘몸짓상징「손담」카드’는 몸짓상징과 표정, 움직임 표현 기호와 같은 동작 설명, 관련 어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몸짓상징을 익히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 카드는 교수·학습 장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양면으로 구성하였다. 카드의 앞면에는 몸짓상징 이미지와 움직임 설명 화살표가 있고 뒷면에는 사진과 해당 단어, 어휘 영역, 카드 일련번호를 제시하였다.
- 몸짓상징「손담」카드는 일반적인 플래시 카드와 비교하여 종이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무광 코팅으로 내구성을 강화하며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도를 낮추었다.
- 손이 작고 손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학습자도 힘들이지 않고 집어 들 수 있도록 204개의 몸짓상징에 대해 10.5cm×14.8cm의 크기로 카드를 제작하였으며,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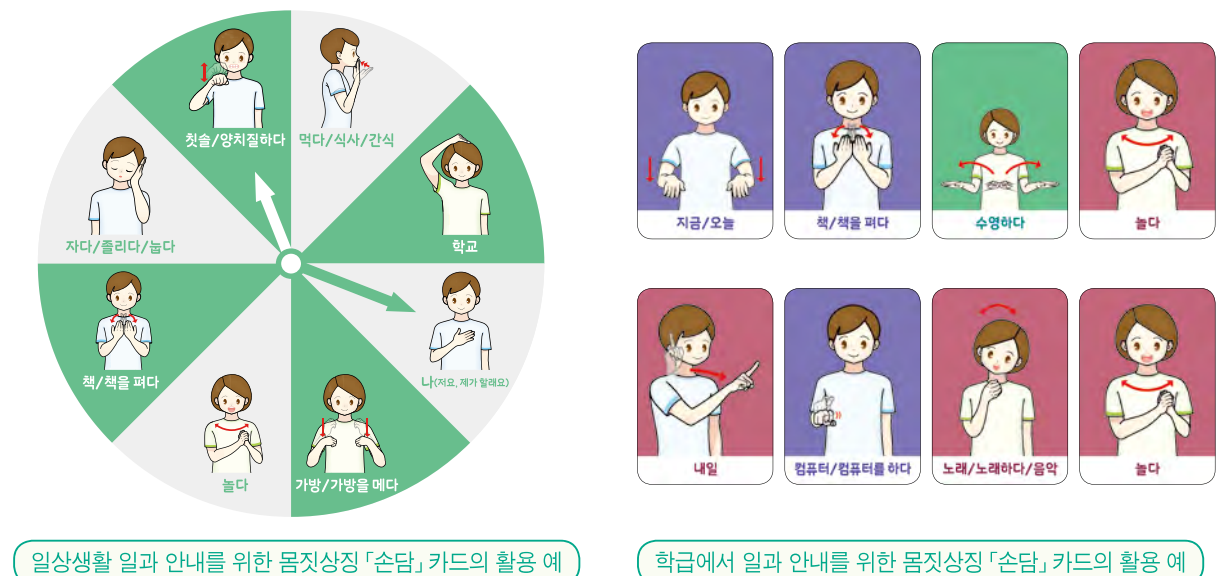
- 왼쪽 상단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링을 사용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저시력 학생들이 앞면과 뒷면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III-8] 학습용 카드

② 카드의 활용

- 카드의 활용은 학습자의 반복 학습을 돕는 전통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다.
- 특히, 인지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폐성장애훈을 수반하는 학생들에게 사진, 삽화와 사진을 활용한 플래시 카드의 시각적 지원은 어휘력을 높이고 몸짓상징 표현을 촉진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한다.
- 카드를 활용한 어휘학습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 학습할 몸짓상징에만 집중할 수 있다. 몸짓상징 「손담」 카드는 한 장에 한 가지 표현만을 소개하기 때문에 학습할 내용을 따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 몸짓상징 「손담」 카드는 훌륭한 놀이감이다. 같은 내용을 복습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능동적 회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편이 몸짓상징 표현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
 - 몸짓상징 「손담」 카드는 버스, 지하철 등 어디에서나 휴대 할 수 있어 학습과 동시에 바로 의사소통 표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일과 안내를 위한 몸짓상징 「손담」 카드의 활용 예

학급에서 일과 안내를 위한 몸짓상징 「손담」 카드의 활용 예

[그림 III-9] 몸짓상징 「손담」 카드 활용의 예



- 몸짓상징「손담」카드를 여러 장 인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특성에 맞춘 단어장을 만들 수 있다.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서 몸짓상징「손담」카드를 다운받아 가정에 보내면 가정과 학교에서 혼동없이 일관되게 몸짓상징을 학습할 수 있다.
-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과표를 작성하며 몸짓상징 카드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몸짓상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카드를 활용하여 몸짓상징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다음의 유의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카드로 얼굴이나 표정을 가리지 않는다.
 - 모둠으로 활동을 할 경우 원을 그리고 앉게 하여 모두 몸짓상징「손담」표현 카드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 몸짓상징「손담」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계속하여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 한다. 큰 소리를 낼 경우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 입 모양을 조금 명확히 하되 자연스럽게 소리 내고, 약간 큰 소리로 이야기 한다.

③ 수반 장애에 따른 몸짓상징「손담」카드 활용 방법

- 몸짓상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몸짓상징「손담」카드를 가리켜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다양한 AAC도구에 몸짓상징「손담」카드와 삽화를 활용하면 ‘감정’이나 ‘상태’, ‘동작’ 등을 표현하는 어휘를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몸짓상징「손담」카드를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AAC 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그림 III-10] 수반 장애에 따른 몸짓상징「손담」카드 사용의 예

- 제한된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각 세션에서 더 적은 몸짓상징 표현을 활용한다.
- 일반적으로 50단어 이상의 몸짓상징「손담」어휘 표현을 학습하면 2개의 연속되는 몸짓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저시력 학생을 위해 명확하고 크게 구성되어 있는 삽화와 글자를 활용해 낱말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이 선호하는 배경 색상으로 카드를 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이는 눈부심이 없는 재질을 선택한다. 글씨체는 일반적으로 명조체 보다 고딕체가 읽기 용이하다. 경우에 따라 확대기나 확대경을 함께 사용한다.
 - 몸짓상징「손담」카드와 삽화나 사진을 흑백으로 확대 복사하여 활용하여도 좋다.
 - 어휘의 배치는 왼쪽이나 오른쪽 한 쪽의 정해진 방향으로 정렬하여 저시력 학생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카드 제작의 예

[그림 III-11] 저시력 학생을 위한 몸짓상징 「손담」 카드 제작의 예

(3)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의 구성과 활용

① 포스터의 구성

-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는 2장 세트 - 52cmx76.5cm로 제작되었다.
- 포스터는 총 2장으로 '사람 및 호칭', '음식 및 식사', '행동 및 정도', '시간 및 때', '자연 및 동식물', '학습 및 진로' 관련 몸짓상징 1장, '기분 및 감정', '건강 및 상태', '위생 및 의복', '사회성 어휘', '여가 및 놀이', '장소 및 위치', '기타' 관련 몸짓상징 1장으로 나누어 담았다.



[그림 III-12] 몸짓상징 「손담」 포스터



② 포스터의 활용

- 몸짓상징「손담」포스터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주변인 모두가 몸짓상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지 않고 상기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학교와 가정 등 몸짓상징을 활용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벽면에 몸짓상징「손담」포스터를 게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몸짓상징의 바른 표현을 확인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에서의 몸짓상징「손담」포스터 활용



가정에서의 몸짓상징「손담」포스터 활용

[그림 III-13] 몸짓상징「손담」포스터 활용의 예

③ 수반 장애에 따른 몸짓상징「손담」포스터 활용 방법

-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등 시각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경우 몸짓상징「손담」표현 포스터를 벽에 게시하고 표현을 익힐 때 마다 포스터에 표시하며 습득 어휘를 누가 표시해 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높일 수 있다.

(4) 몸짓상징「손담」동영상의 구성과 활용

① 동영상의 구성

- 272개의 몸짓상징「손담」어휘를 표현하는 204개의 몸짓상징「손담」기본 표현 영상과 표현 설명을 탑재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다.
- 각 몸짓상징「손담」표현 별 동영상은 20초 내외로 짧고 쉽게 제작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 몸짓상징「손담」표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표현은 국어사전순과 13개 범주 순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 몸짓상징「손담」표현은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 없이 표현되어 질 수 있으나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왼쪽’, ‘오른쪽’과 같은 어휘의 동영상은 학생이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거울 모드로 제시하였다.
- 몸짓상징「손담」표현 동영상은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III-14] 몸짓상징 「손담」 동영상

② 동영상의 활용

- 반복하여 시청하며 몸짓상징을 쉽게 따라하고 익힐 수 있다.
- 몸짓상징 표현 설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동영상은 유튜브에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빈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 동영상의 표현은 기본 표현으로 학습자별 운동 기능에 따라 약속된 변형의 사용이 가능하다.

③ 수반 장애에 따른 몸짓상징 「손담」 동영상 활용 방법

- 지적장애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각 동영상은 짧게 구성하여, 마치 광고를 보는 듯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주위를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반복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자폐성장애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를 충실히 구현하였으며 일정한 어휘의 일정한 순서에 따른 몸짓상징 제시를 통해 자폐성 장애학생의 몸짓상징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지체장애학생을 위해 동영상의 정지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 동작을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동작을 따라 연습할 수 있다.
-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해 명료하고 집약적인 설명으로 동작이 표현 방법을 들려 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동작을 학습할 수 있다.
- 청각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은 표현을 설명할 때 모두 정면을 향해 서서 바르고 큰 입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각중복장애학생들은 독순을 통해 입모양을 보고 시각적으로 언어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해 몸짓상징 관련 어휘도 낱말로 크게 제시하였으므로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효과적인 자료이다.

